

# 【KOLOPI지수 관련기업 정기주총 성황리 개최】



**한국물류주가지수(KOLOPI) : 113.77(↑22.65)**

한국물류주가지수(KOLOPI : Korea Logistics Stock Price Index)란 2007년 1월 2일 현재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한국물류협회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기업의 주가가격의 합을 평균화 한 수치이다.

따라서, 주식거래가 가능한 29개기업의 한주당 가격의 합(2006년 종가기준)을 기업수로 나눈 가격을 한국물류주가지수 기준인 100으로 하여 격월

간 물류가 발행되는 시점에 따라 한국물류주가지수를 발표한다.

또한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물류협회 회원사로 가입하면 자동으로 한국물류산업 주가지수에 편입된다.

한국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물류관련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본다.

종목코드	종목명	2006년 종가(원) -기준가-	3월 16일 종가 (원)	5월 11일 종가	등락폭
	물류산업지수	100.00	91.12	113.77	22.65
	물류산업주가	116,684	106,327	120,974	14,646
A086280	글로벌비스	28,050	27,200	33,550	6,350
A000270	기아차	13,450	12,250	11,200	▼1,050
A004250	내소날푸라스	10,200	10,000	11,850	1,850
A000210	대림산업	76,000	80,000	112,000	32,000
A001680	대상	13,250	11,250	11,050	▼200
A020180	대신정보통신	825	1,000	1,105	105
A004550	대우차판매	28,950	27,400	39,600	12,200
A000120	대한통운	93,700	83,200	84,700	1,500
A004140	동방	19,100	17,200	25,100	7,900
A006040	동원산업	36,950	38,800	58,200	19,400
A004990	롯데제과	1,292,000	1,156,000	1,186,000	30,000
A009150	삼성전기	43,350	32,850	37,300	4,450
A008000	새한	7,300	5,060	8,840	3,780
A004360	세방	8,430	8,830	13,050	4,220
A084180	수성	3,290	3,580	4,085	505
A004170	신세계	580,000	520,000	608,000	88,000
A090430	아모레퍼시픽	580,000	529,000	662,000	133,000
A021240	웅진코웨이	25,800	27,700	32,000	4,300
A009240	한샘	7,710	7,900	7,330	▼570
A009180	한솔CSN	4,200	3,475	3,800	325
A014130	한익스프레스	10,600	15,400	15,550	150
A002320	한진	32,500	33,050	53,300	20,250
A012330	현대모비스	85,900	79,900	79,900	0
A010520	현대하이스코	9,510	8,820	12,300	3,480
A028150	GS홈쇼핑	83,000	71,200	78,200	7,000
A039420	KL-Net	6,490	10,300	10,450	150
A051900	LG생활건강	123,500	107,500	129,000	21,500
A051910	LG화학	43,100	48,300	57,800	9,500
		3,267,155	2,977,165	3,387,260	410,095

**【한솔CSN, 34기 주총 개최, 주당 30원배당 결의..올해 매출 3천억원 목표】**



종합물류인증기업 한솔CSN(대표 서강호은 지난 3월 23일 역삼동 삼성호텔에서 제 34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서 한솔CSN은 지난해 2,515억원 매출액과 60억원의 영업이익, 30억원의 당기 순손실의 실적을 발표하고, 올해에도 보통주 현금배당(주당 3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솔CSN이 올린 매출은 전년대비 11.6% 신장하였으나, 치열한 수주 경쟁과 신규 투자비용의 증가, 매출원가의 상승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지분법 평가 기업인 한솔제지의 적자가 반영되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비록 적자가 났지만, 영업이익은 흑자이며, 배당가능 이익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쌓아 올린 주주와의 신뢰를 유지하고 중시하기 위하여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올해에는 더 나은 수준의 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익규모를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강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한솔CSN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만도, 삼성SDI, 대한제당 등 타겟산업에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광명역, 부산신항 등에 주요 거점을 확보하여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여러가지 성과를 올렸다” 고 말했다.

특히,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획득하여 기업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되었으며, 올해에는 매출 3천억원, 영업이익 3자리, 해외거점 3곳 이상 확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솔CSN은 올해 시장 전망에 대해 국내 물류기업들이 M&A를 통해 대형화되고, 대기업들이 물류사업에 신규 진출하는 등 시장의 규모는 더욱 커지고 활성화될 추세지만 고유가, 환율하락, 원가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한솔CSN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발 빠른 대응과 공격적인 경영으로 미래의 성장기반을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장을 주도하여 최고

의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온 임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L-Net, 창사이래 처음으로 주당 180원 현금 배당】**

KL-Net은 3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당 18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이 같은 현금배당은 KL-Net가 출범한지 창사 이래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지난 2004년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한 특별한 실을 모두 털어내고, 2006년도에 매출 243억원, 경상이익 28억 원이라는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으며, 금융사고 관련 36억 원의 특별이익이 발생함으로써 흑자전환에 성공, 1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에 따라 이 같은 배당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정천 대표는 “회사의 어려운 고비에도 변함없이 성원해 준 주주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고객은 물론 주주들의 이익 극대화를 실현하는 경영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현금배당 주당 4,500원】**



아모레퍼시픽(대표이사 서경배)은 지난 2월 27일 오전 9시 본사 10층 강당에서 제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분할 이후 7개월간의 영업보고와 부의 안건들을 승인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주총에서 지난 7개월간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매출 7115억원, 영업이익 963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경상이익은 837억원, 당기순이익은 561억원을 시현했다. 현금배당은 보통주 4,500원(액면가의 90%, 시가배당율 0.8%), 우선주 4,550원(액면가의 91%, 시가배당율 1.8%)를 의결했다.

제2호 의안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서는 △

손 욱(삼성SDI 상담역) △송재용(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황이석(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한국공인회계사) 3명의 중임을 승인했다.

또 제3호 의안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당기 2기의 보수한도를 전기 1기와 같은 50억원으로 의결했다

### 【글로벌, 주당 150원 현금배당】



글로벌(주)(www.glovis.net)는 3월 9일(금) 오전10시 현대자동차 원효로 사옥 3층에서 2백여명의 주주가 참석한 가운데 “제 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주총에서 글로벌은 지난해 1조8,850억원의 매출과 556억원의 영업이익, 66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고 발표하였으며 액면가 기준 30% 현금배당을 결의하였다. 글로벌의 2006년 매출액 1조 8,850억원은 전년대비 22.3% 증가한 것이며 전 사업부문에서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 【동방, 지난해 매출 3천억 달성】

(주)동방(대표 장세강)은 3월 16일 오전 신한은행 광교별관 3층에서 제 42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동방은 2006년 매출액 3210억 1500만원과 영업이익 179억 6400만원, 당기순이익 86억 7500만원을 기록했으며, 사외이사로 환경처 차관을 역임한 한수생씨를 선임했다.

### 【세방, 당기순이익 45% 증가】

세방(주)은 매출액 4102억 4600만원(7.5%증)과 영업이익 237억 8200만원(5.3%증), 당기순이익 253억 7800만원(45%증)을 실현했다. 세방도 주총을 통해 이의순 회장과 이상용 사장, 권행석 부사장, 그리고 사외이사로 전준수 서강대 교수를 재

선임했다.

### 【수성, 당기순이익 52억 달성】

수성은 지난해 영업이익 27억300만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23.65% 감소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228억 3500만원으로 전년보다 9.77%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52억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91.56% 증가했다.

### 【한진, 423억 당기순이익 기록】

(주)한진은 3월 16일 주주총회를 마치고 매출액 8025억 900만원(8.1%증)과 영업이익 96억 500만원(63.2%감), 당기순이익 423억 3900만원(11.4%증)을 승인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사외이사로 김지홍 한양대 경상학부 교수를 재선임하고, 정관을 개정하여 사업목적에 중고자동차매매업과 시설대여업을 추가해 렌터카차량의 계약 만료시 중고차로 처분키로 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SAP 아태지역 및 일본 MDM 디렉터인 아툴 파텔(Atul Patel)이 직접 방한하여 SAP MDM 소개 및 국외고객사례를 직접 발표하여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 【대한통운, ‘신선대 컨테이너 터미널’ 최대주주로】

대한통운(대표 이국동, www.korex.co.kr)은 부산 ‘신선대 컨테이너 터미널(이하 신선대 터미널)’의 지분 25.23%를 KCTC로부터 인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액은 KCTC의 164,021주를 475억 원에 인수했다.

대한통운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신선대 터미널 지분 12.55%에 이번 인수분을 합쳐 37.78%의 지분을 보유하게 돼 최대 주주가 됐다.

이번 지분 인수로 대한통운은 기존에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만 컨테이너 터미널 외에 신선대 터미널의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국제적인 터미널 운영사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신선대 터미널은 부산항 신선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컨테이너 전용 부두로, 안벽 길이 1,500m에 5만톤급 모선 5척이 동시에 접안이 가능한 5개 선석으로 구성돼 있다. 1991년 개장해 연간 200만 TEU 이상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컨테이너터미널이다.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은 “기존 감만 터미널의 운영뿐 아니라 신선대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물류**